

●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잠실개표소 시위 나홀차...핸드볼 선수들*타이완 기자 봉변 당해	정치	주요뉴스
2	반도체발 급락에 코스피*코스닥, 잇단 서킷브레이커	경제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홀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에는 오늘 오전 10시쯤 태극마크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진중시(晋中市)에서 시작되는 제25회 세계여자 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훈련기구를 꺼내려 온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며 막아섰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영상은 없는 거 같다"며 협조를 구하고, 선수들이 "안에 있는 공인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왜 꼭 그 공이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며 손을 비비는 등 '간청'한 끝에 시위 참가자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24분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백 등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20세 안팎의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온 감독은 "시위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나면 기다리겠지만 2~3주가 걸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분 뒤에는 한 외신 기자가 역시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중국어로 들리는 언어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를 하는 듯한 모습에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몰려와 기사를 둘러싸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아니냐", "하도 위장이 많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하는 참가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사람이 있느냐"며 주위에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약 5분 뒤 방송이 끝나자 중국어를 구사하는 시위 참가자가 다가가 소속을 물었고, "타이완"이라는 답을 듣고서야 이 기자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내 진보성향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자정(8천여 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10곳을 봉쇄 중이나 구호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11시 15분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9천500~1만 명으로, 60대 이상(26.2%)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내내 20대가 30% 안팎으로 최다 연령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위 참가자 상당수가 주말이 지나면서 학교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참가자 규모와 연령 구성이 변하며 시위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재선거'로 통일했던 구호는 오늘 강성보수 단체가 주장해온 '부정선거' 쪽으로 기울며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적힌 시위 벽보에는 굵은 펜으로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 등의 문구가 덧씌워진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를 강성진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몰아세우며 크고 작은 언쟁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350명가량을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도면을 든 모습을 목격했다며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술렁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돌발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홀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훈련기구를 꺼내려 왔다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당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외신 기자를 경계하기도 했다.

(2)기사/뉴스요약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8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3분 42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 거래일보다 685.85포인트(8.40%) 내린 7,474.74를 나타냈습니다.

20분 뒤인 오전 9시 23분에는 유가증권시장 매매가 재개됐으며,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매매로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매매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올해 3번째이며, 역대로는 9번째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난 3월 4일과 9일 각각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9시 34분에는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잇달아 발동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증가보다 81.30포인트(6.26%) 내린 1,216.85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5일 이후 1거래일 만입니다.

이로써 코스피 시장 내 사이드카는 올해만 22번 발동되며 이중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는 각각 11번씩 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삭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 코스닥 지수 낙폭이 8%선을 넘어서자 한국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 오후 2시 36분 52초부터 20분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80.59포인트(8.03%) 내린 921.85를 가리켰습니다.

올해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4일 이후 두 번째이고 역대 발동 횟수는 이번까지 총 12차례입니다.

앞서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초반 급락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증가보다 7.95% 내렸으며 코스닥150지수는 8.11% 급락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지만, 오후 들어 재차 낙폭이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핵심: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8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코끼리 해피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상징이자 전 세계 동물권 운동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던 아시아코끼리로, 2026년 5월 26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특히 2018년 해피를 원고로 한 세계 최초의 '비인간 인신보호 소송'이 제기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전 세계적 논쟁을 일으켰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